

【논문】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와 역학사상

—음양오행론과 삼재론을 중심으로—

김 만 태

【주제분류】 언어학, 주역철학

【주요어】 한글, 훈민정음, 역학(易學), 역철학(易哲學), 음양오행, 삼재(三才)

【요약문】 훈민정음은 사람의 소리에도 음양오행의 이치가 담겨 있다는 인식 하에서 그 음양오행 이치에 따라 각 글자에 해당하는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 ‘모양[形]을 본뜨다[象]’는 의미를 역의 패상처럼 추상적 의미까지도 형상화했다는 뜻으로 확장 해석을 해야만 훈민정음에 함축된 역학적 의미를 보다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훈민정음에 함축된 역학사상이란 다른 게 아니라 하늘이 음양과 오행을 부여해서 만물을 생기게 하는 것이다. 만물의 다양한 모습은 오행의 다름에서 비롯되고, 오행의 다름은 음양의 본질에 바탕을 두고, 음양의 본질은 하나의 이치인 태극에 근본을 둔다. 만물 속에는 각각 하나의 태극이 있다는 것이다. 우주만물의 생성과 운행 원리는 태극·음양·오행·삼재로 귀결된다는 역철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성음(聲音)을 이해했던 우리 선인들의 사유 결정체가 오늘날 ‘한글’이란 소리와 문자로서 존재한다. 훈민정음이 태극이라는 하나[一]의 이치에서 출발했지만 그 적용인 순음과 후음의 오성·오행 분류에 있어서는 다름[殊]을 연출하고 있다. 훈민정음의 제자·자음·모음·합자 등에는 동양의 역철학적 원리와 사상들이 대거 함축되어 있기에 한글은 음운적 자질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만든 문자 체계이면서도 철학적 사유 요소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유일한 문자로 평가된다.

I. 머리말

한자(漢字)를 빌어 우리말을 적는데 많은 불편을 느낀¹⁾ 우리 조상들은 마침내 우리 고유의 문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훈민정음(訓民正音), 즉 오늘날의 한글이다. 고유 문자의 창제로 말미암아 문장은 한자·한문으로, 구어는 우리말로 하던 이중 언어생활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언어는 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규정하며 사유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내면의 인식과 사유가 언어를 통해 표현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한글이 만들어짐은 우리 민족이 비로소 인식과 사유의 공동체 기반을 이루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한 사회에서 철학적 사유를 전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방법적 수단은 바로 언어이기 때문이다.

1940년에 해례(解例)가 붙어 있는, 훈민정음을 반포하던 그 때(1446년, 세종 28년)의 원본 『훈민정음』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훈민정음의 제자(制字) 기원과 관련하여 그 설이 매우 분분하였다. 그러다가 『훈민정음』 해례본²⁾이 발견되면서 자음인 초성(初聲)은 소리를 만들어 내는 발음기관의 상태와 작용을 본뜨고, 모음인 중성(中聲)은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를 본떴다는 상형설(象形說)이 정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몽고의 옛 문자인 파스파(八思巴) 문자 모방설, 송나라 정초(鄭樵, 1104-1162)의 『기일성문도(起一成文圖)』에서 자형을 모방했다는 설 등이 제기되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훈민정음』 제자해(制字解)에서 천명하고 있듯이 훈민정음은 문자 이면서도 그 제자 배경에는 우주만물의 이치인 음양(陰陽)과 오행(五行) 그리고 삼재(三才) 등 동양의 역학(易學)사상을 함축하고 있다. 훈민정음 창제자들은 세상의 만물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는 음양과 오행, 삼재로 동일하므로 사람의 성음(聲音)도 역학의 원리에 입각해서

1) 이런 상황을 정인지는 “모난 자루를 둥근 구멍에 끼우는 것과 같이 서로 맞지 않다.(是猶柄鑿之鉏鋸也)”라고 했다. 『訓民正音』 鄭麟趾序.

2) 간송미술관 소장본(국보 제70호)으로 원본 『훈민정음』이라고도 한다. 이 글에서 『훈민정음』이라 칭하는 것도 『훈민정음』 해례본을 의미한다.

파악하고자 했고, 문자의 이치와 소리의 이치도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소리의 이치를 세밀히 밝혀 그것이 바로 문자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훈민정음은 문자와 소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천지자연의 소리 이치를 담은 유일한 문자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양오행과 삼재에 따른 훈민정음의 역학적 의미 부여가 오히려 건강부회의 논리이며 비합리적인 중세적 세계관의 발현이며 훈민정음의 실제 파악에 걸림돌이 된다면서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³⁾

그리고 자음의 오행·오성(五聲) 분류에서 순음(唇音)과 후음(喉音)이 『훈민정음』에서와 다르게 오늘날 역학·한의학 등에서 적용되고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된 이래 훈민정음을 역학과 관련시킨 연구가 많이 나오고, 이에 따라 훈민정음의 역학적 의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이러한 분류상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한글은 모음이 독립적으로 쓰이지는 않으나 거의 완전한 음소(音素)문자인데, 실제 표기에 있어서는 음소를 묶어서 음절을 단위로 표기하여 음절문자처럼 쓰인다. 인류의 문자 발달사를 살펴보면, 그림문

3) 이상백, 『한글의 기원-훈민정음 해설』, 통문관, 1957, p.25, “다만, 음양오행설과 방위, 음계의 교변(交變)에 의한 설명에 이르러서는 당시에는 극히 신묘·심오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오늘날 우리로 볼 것 같으면, 혹은 번쇄(煩鎖), 혹은 부회(附會), 한갓 논리의 유희에 빠진 느낌이 없지도 않으니 …” ; 김영환, 『〈해례〉의 중세적 언어관』, 『한글』 198, 한글학회, 1987, p.157,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한 설명이나 형이상학적 정당화는 역사의 어떤 단계에서 생겨나 과학의 진보와 함께 반드시 폐기·극복되어야만 했던 형이상학적 도식의 무비판적 적용이었다.” ; 리득춘, 『한조언어 문자 관계사』, 박이정, 1996, p.187, “훈민정음은 형이상학적인 입장에 서서 언어의 생성원리와 조직 원리를 중국의 음양오행설로 설명하고 있다. <훈민정음> 해례의 작자들은 이미 만들어진 문자에 억지로 이러한 이론을 들쭉음으로써 자기들의 관념론적 사상과 사대주의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 김동소, 『중세 한국어 개설』, 한국문화사, 2003, p.30, “(음양오행에 따른 의미 부여는) 중세 한국어와 정음 문자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자의 단계에서 시작하여 단어문자, 음절문자의 단계를 지나 그리스 사람들에 의해 음소문자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한글은 음소문자의 단계를 넘어 발음기관의 모양이나 소리의 특성과 같은 음운적 자질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만든 문자 체계인 자질(資質)문자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인류 문자사를 한 단계 진보시킨 것으로 평가된다.⁵⁾

이처럼 한글은 진보된 문자이면서도 그 제자 배경에는 역학의 원리와 사상이 함축되어 있는, 철학적 사유 요소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유일한 문자이다. 그리고 한글은 그 창제 시기, 창제자, 창제 과정, 창제 원리가 밝혀진 유일한 문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타파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지만 이런 시점에 『훈민정음』 원본을 중심으로 훈민정음에 담긴 역학적 의미를 다시금 고찰하고, 고민해보는 것이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II. 훈민정음 제자원리에 함축된 역학사상

1. 훈민정음의 역학적 배경

언어야말로 인간의 최고(最古) 형이상학이며 우주론이라 하겠다. 물론 언어의 이 형이상학은 그 자체 실재를 그리고 있는 투박한 가설이다. 그러나 인간의 출현에 있어서 언어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도구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⁶⁾ 훈민정음 창제자들은 언어에 담긴 형이상학과 우주론을 지고(至高)의 경지로 함축하고 체계화하였다.

『훈민정음』 제자해 첫머리에서 “천지 만물의 이치[道]는 오로지 음

4) 자질문자(feature system)는 같은 종류의 소리를 내는 기호들은 하나의 기호를 공유한다. 예를 들면 한글의 자음 체계는 발성기관의 모양과 작용을 본떠서 만든 다섯 가지 기본 글자(ㄱ·ㄴ·ㄷ·ㄹ·ㅇ)에 소리가 거는 음성적 특징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획을 더한 것이다.

5) 박창원, 『훈민정음』, 신구문화사, 2005, pp.25-26.

6) 曹湧鉉, 「도구·의식·언어」, 『과학과 철학』 5, 과학사상연구회, 1997, p.51.

양과 오행일 뿐이다. 곤(坤)과 복(復)의 사이에서 태극(太極)이 생겨나서, (태극이) 움직이고 멈춘 후에 음양이 생겨난다. 세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가 어찌 음양을 버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사람의 소리도 모두 음양의 이치[理]를 갖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미처 사람이 살 피지 못할 따름이다.”⁷⁾라고 하였다. 또한 『훈민정음』 말미의 정인지서(鄭麟趾序) 첫머리에서도 “천지자연의 소리[聲]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글이 있다. 그래서 옛 사람이 그 소리를 바탕으로 글자를 만들어 만물의 뜻[情]을 통하게 하고 삼재의 도리[理]를 (글자에) 실었으니 후세에도 바뀌지 못하는 것이다.”⁸⁾라고 해서 사람 성음(聲音)을 태극과 음양, 오행, 삼재 등의 역리(易理)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역학 원리를 바탕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했음도 제자해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다.

“이런즉 초성 가운데 스스로 음양과 오행 그리고 방위의 수가 있는 것이다(是則初聲之中, 自有陰陽五行方位之數也). (…)(중성을 만듦에 있어) 하늘·땅·사람을 본됨으로써 삼재의 이치[道]를 갖추었다(取象於天地人而三才之道備矣). (…)(초성·중성·종성이 합쳐져 이루어진 글자로 말할 것 같으면, 동(動)과 정(靜)이 서로 뿌리가 되고 음과 양이 서로 변하는 뜻이 있으니, 동이란 하늘[초성]이요, 정이란 땅[중성]이며, 동과 정을 겸하는 것은 사람[중성]이다(以初中終合成之字言之, 亦有動靜互根陰陽交變之義焉. 動者, 天也. 靜者, 地也. 兼互動靜者, 人也).”⁹⁾

이는 우주만물의 모든 이치가 역(易)을 바탕으로 해서 발달한 태극·음양·오행 등에 있다고 생각한 송대 신유학자들의 사유방식을 계승한 것이다. 『태극도설(太極圖說)』의 주돈이(周敦頤, 1017-1073)와 더불어 동양 우주론의 근원사상을 이룬 소옹(邵雍, 1011-1077)이 『황극

7) 『訓民正音』 制字解, “天地之道, 一陰陽五行而已. 坤復之間爲太極, 而動靜之後爲陰陽. 凡有生類在天地之間者, 捨陰陽而何之. 故人之聲音, 皆有陰陽之理, 顧人不察耳.”

8) 『訓民正音』 鄭麟趾序, “有天地自然之聲, 則必有天地自然之文. 所以古人因聲制字, 以通萬物之情, 以載三才之道, 而後世不能易也.”

9) 『訓民正音』 制字解.

경세서(皇極經世書)』에서 성음(聲音)의 이치를 안 이후에야 만물의 이치를 알 수 있다고 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¹⁰⁾

훈민정음 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상적·학문적 배경은 중국 성운학(聲韻學)과 송대 신유학(新儒學)인데, 이 모두는 고려 말 안향(安珦, 1243-1306)에 의해 전래된 성리학(性理學)의 범주에서 논의된다. 성리학은 당시 성행하던 도가와 불교의 우주론을 수용해서 철학적으로 체계화하고자 한 주돈이의 『태극도설』이 그 전기가 된다. 이후 주희(朱熹, 1130-1200)가 주돈이의 ‘태극’ 사상을 수용하고 정호(程顥, 1032-1085)의 ‘천리(天理)’ 사상과 정이(程頤, 1033-1107)의 ‘성즉리(性卽理)’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장재(張載, 1020-1077)와 소옹(邵雍)의 기(氣)이론을 흡수하여 집대성함으로써 비로소 성리학의 큰 틀이 완성되었다. 성리학은 이기론(理氣論)·태극론(太極論) 등의 형이상학적 문제와 심성정론(心性情論)·성경론(誠敬論) 등의 인간 수양적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문인데, 이 글에서는 훈민정음 창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음양오행론¹¹⁾과 삼재론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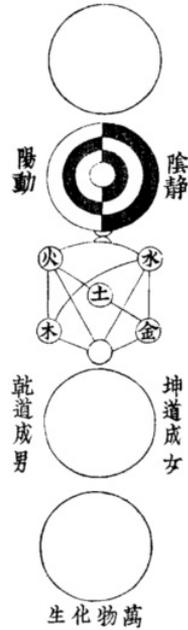
10) 『皇極經世書』 권2 纂圖指要·下, “사람은 각각 성품이 있고 만물은 각각 종류가 있다. 성품과 종류 사이에는 이(理)와 수(數)가 있다. 천지를 추측한 후에야 만물의 이치가 밝아지고 음양의 깊은 이치를 찾은 후에야 만물의 수를 볼 수 있다. (...) 성(聲)·색(色)·형(形)·기(氣)에 이르러서는 각기 그 종류에 따라 얻는다. 가히 살펴서 알 수 있는데 성음(聲音)이 심하다. 성(聲)은 양(陽)이고 하늘에서 생겨난다. 음(音)은 음(陰)이고 땅에서 생겨난다. 이 성음의 수를 안 이후에야 만물의 수를 볼 수 있다. 성음의 이치를 안 이후에야 만물의 이치를 알 수 있다. (...) 천지를 구비하고 만물을 겸하여 그 덕이 태극에 합하는 것은 오직 인간이 아니겠는가?(人各有品, 物各有類, 品類之間有理有數存焉. 推之於天地而後萬物之理昭焉. 隲之於陰陽而後萬物之數觀焉. (...) 至于聲色形氣, 各以其類而得焉. 可考而知, 聲音爲甚. 聲者陽也, 而生於天. 音者陰也, 而出乎地. 知聲音之數而後萬物之數觀矣. 知聲音之理而後萬物之理得矣. (...) 備天地兼萬物而合德于太極者, 其唯人乎)”

11) 애초 소박한 자연관에 불과했던 음양오행론은 전국 말기 추연(鄒衍, B.C.305?-B.C.240?)에 의해 자연주의 외피를 벗었으며, 진한(秦漢)시대에 음양오행론이 크게 흥행함에 따라 많은 사물에 음양오행의 의미가 부여되었다. 서한(B.C.206-A.D.8)에 이르러 유교가 국교로 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동중서(董仲舒, B.C.179?-B.C.104?)에 의해 음양오행론은 보다 완성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음양오행론은 한대(漢代) 모든 사상계

훈민정음 창제의 배경 사상을 좀 더 근본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한다.

유교의 철학적 지평과 통일적 세계관을 제시하는 『주역』은 자연과 인간의 우주론적 조화 질서의 연관 구조를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사상으로 설명한다. 역(易)의 논리 체계에서 삼재의 세계 구조는 괘상(卦象)에서 잘 드러난다. 역의 괘상에는 세 효로 된 팔괘[單卦]와 여섯 효로 된 64괘[重卦]가 있다. 팔괘의 성립 과정을 살펴보면, 역에서는 태극이 양의가 되고(一變), 양의가 사상이 되고(二變), 사상이 팔괘를 이룸으로써(三變) 변화의 기본 과정이 이루어진다(三變成道). 그 분화하는 방법은 음양의 이분법이지만, 삼변으로 팔괘를 완성하는 것은 삼재를 이루니 역은 음양과 삼재를 기본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우주만물의 시원(始原)이면서 동시에 생성 원리이자 순환 원리를 상징하는 태극(太極)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나는 것은 『주역』으로, “역(易)에 태극(太極)이 있다. 이것이 양의(兩儀)를 낳고, 양의는 사상(四象)을 낳고, 사상은 팔괘(八卦)를 낳고 팔괘가 길흉(吉凶)을 정하고, 길흉이 대업(大業)을 이룬다.”¹²⁾라고 했다. 태극·양의·사상·팔괘로 이어지는 순차적 전개는 우주 생성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 태극은 우주만물 생성의 시원이라는 사전적(辭典的) 의미만



<그림 1> 태극도

를 지배하는 기틀이 되었고, 술수(術數)뿐 아니라 천문·역법·음악·도가·유학 등 모든 영역으로까지 확산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세분되었다. 그래서 음양오행론은 자연과 인간, 사회를 한데 꿰는 유일무이한 해석 틀로 자리 잡게 되었고,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이 틀에 맞춰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자연[하늘]과 사람은 한 몸이 되어 상감(相感)·상응(相應)한다고 인식되었다.

12) 『周易』繫辭上傳, “是故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八卦定吉凶, 吉凶生大業.”

있을 뿐 아직 철학적 논의를 시작할 만한 정의는 없었다. 하지만 북송대 주돈이에 의해 그 전기가 마련된다. 당시 성행하던 도가와 불교의 우주론을 받아들인 주돈이는 처음으로 태극과 음양오행이란 개념을 사용하여 우주 생성의 체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로 말미암아 비로소 태극과 음양오행이 중요한 철학적 범주로 포함되기 시작했다.

주돈이의 『태극도설』에 따르면, 본체 곧 우주만물의 궁극적 근원은 ‘무극이면서 태극이다(無極而太極).’¹³⁾ 그리고 태극이 움직여서 양(陽)을 낳고, 그 움직임이 다하여 음(陰)을 낳음으로써 하나의 태극이 음과 양의 둘로 드러난다. 이러한 음과 양의 두 기(氣)가 순환 운동을 하면서 화합하여 오행을 낳고, 음양·오행이 오묘하게 화합하여 만물을 생성한다. 오행은 음양과 하나이고, 음양은 태극과 하나이며, 태극은 본래 무극이다. 그는 『통서(通書)』에서도 “오행은 음양이고, 음양은 태극이다.”¹⁴⁾라고 했는데, 이는 우주만물의 본체로서 태극과 음양, 오행은 결국 하나[一]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다.

훈민정음 창제의 사상적 배경을 담고 있는 표현들을 『훈민정음』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천지의 이치(天地之道)’, ‘음양오행(陰陽五行)’, ‘태극(太極)’, ‘음양의 이치(陰陽之理)’, ‘천지 만물의 이치(天地萬物之理)’, ‘자연에서 이룬(成於自然) 지극한 이치(至理)’, ‘이치는 이미 둘이 아니다(理既不二)’라는 등의 내용이 두루 언급된다. 이들은 ‘천지 만물의 이치—음양오행의 이치—태극—도(道)—리(理)’라는 연관 관계를 통해서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같은 ‘하나[一]’라는 만수귀일(萬殊歸一)의 성리학적 세계관을 잘 보여준다.

13) 주돈이의 ‘무극에서부터 태극이 되었다(自無極而爲太極)’는 말은 理學家들의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주희는 ‘自’와 ‘爲’ 두 글자가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서 이 구절을 ‘무극이면서 태극이다(無極而太極)’라는 말로 바꿨다. 주돈이가 『태극도설』에서 태극에 앞서 무극을 언급한 것은 만물의 근원을 有에 두고, 다시 이 有의 근원을 無에 두는 도가의 ‘유생어무(有生於無)’ 사고와 비슷하다. 도가에서는 有와 無가 발생적으로 선후 관계에 있는 다른 두 존재로 인식하는데 반해, 유가의 주희는 주돈이가 말하는 ‘무극[無]이면서[而] 태극[有]이다’의 의미를 有와 無, 두 존재로 분별할 수 없는 동일한 존재의 양면적 특성을 파악한 것으로 본다.

14) 『性理大全書』 권2 『通書』 1, “五行陰陽, 陰陽太極.”

특히 『훈민정음』 제자해 서두에 이런 성리학적 우주 본체관이 잘 나타나 있다. 제자해 말미에서는 “정음을 지음에 천지 만물의 이치[理]가 다 갖추어지게 되니, 참으로 신묘하도다!”¹⁵⁾라고 하였고, 정인지는 그의 서문에서 “정음을 지으심도 앞선 사람의 서술에 근거하지 않고 자연(自然)에서 이루신 것이다. 참으로 그 지극한 이치[理]가 있지 아니한 바가 없으며 인위적으로 한 사사로운 일은 아니다.”¹⁶⁾라고 천명하였다.

“천지의 이치[道]는 오로지 음양과 오행일 뿐이다. 곤(坤)과 복(復)의 사이에서 태극이 생겨나서, (태극이) 움직이고 멈춘 후에 음양이 생겨난다. 세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가 어찌 음양을 버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사람의 소리도 모두 음양의 이치[理]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미처 사람이 살피지 못할 따름이다. 지금 훈민정음을 만드는 것은 처음부터 지혜로써 마련하고 애써 찾은 것이 아니라 소리에 따라 (본래부터 있던) 그 이치[理]를 다 밝혔을 따름이다. (세상 만물의 모든) 이치[理]는 이미 둘이 아니니 어찌 하늘과 땅 그리고 귀와 신이 그 운용을 같이 하지 않겠는가?”¹⁷⁾

“한 번 음의 기운이 되고, 한 번 양의 기운이 되는 것을 도(道)라고 말한다.(一陰一陽之謂道)”¹⁸⁾라는 『주역』 계사전과 “음양의 이기(二氣)와 오행이 만물을 변화시키고 생겨나게 한다. 오행의 다름이 곧 음양의 본질이고, 음과 양 둘의 근본은 하나인 태극이다.(二氣五行 化生萬物 五殊二實 二本則一)”¹⁹⁾라는 『통서』, “태극은 단지 하나의 이치라는 글자일 뿐이다.(太極只是一箇理字)”라는 『주자어류(朱子語類)』²⁰⁾의 말

15) 『訓民正音』 制字解, “正音作而天地萬物之理咸備, 其神矣哉.”

16) 『訓民正音』 鄭麟趾序, “正音之作, 無所祖述, 而成於自然, 豈以其至理之無所不在, 而非人爲之私也.”

17) 『訓民正音』 制字解, “天地之道, 一陰陽五行而已. 坤復之間爲太極, 而動靜之後爲陰陽. 凡有生類在天地之間者, 捨陰陽而何之. 故人之聲音, 皆有陰陽之理, 顧人不察耳. 今正音之作, 初非智營而力索, 但因其聲音而極其理而已. 理既不二, 則何得不與天地鬼神同其用也.”

18) 『周易』 繫辭上傳.

19) 『性理大全書』 권3 『通書』 2.

20) 『朱子語類』 권1 理氣·上

과도 결국 상통한다.

그러나 “곤(坤)과 복(復)의 사이에서 태극이 생겨나서”라는 말은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주역 64괘를 1년 12달에 배정할 수 있는데, 특히 음양의 소장(消長)과 관련되는 12괘는 해당 월의 기준이 된다. 동짓달을 의미하는 복(復·䷗)괘에서 양(陽)이 비로소 처음 생겨나 점차 성장하여 건(乾·음4월·䷀)괘에 이르면 양이 극성해지고, 양이 극성해지면 다시 음(陰)이 밑에서 생겨나[구(姤)괘·음5월·䷫] 점차 성장하여 곤(坤·음10월·䷁)괘에 이르면 음이 극성해지는 순환적 의미를 갖고 있다. 소용은 양이 성장하는 과정을 선천(先天), 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후천(後天)으로 보는데, 곤괘와 복괘가 바로 후천에서 선천으로의 연결고리가 된다. 주희가 『역학계몽(易學啓蒙)』에서 64괘 원도(卦圓圖)에 절기를 배분하면서 곤괘와 복괘 사이에 ‘동지자중’(冬至子中, 동지 자월 중앙)을 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²¹⁾ 즉 곤괘 다음의 복괘에서 일양(一陽)이 시생(始生)하는 계기적 순환원리를 태극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리(理)’를 최고의 철학적 범주로 삼아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에 따르면, 만물의 본원인 리[태극]가 음양의 두 기(氣)를 생하고, 기가 오행을 생한 후 다시 만물을 생한다. 만물은 리로 말미암아 생하므로 만물 가운데 각기 하나의 리가 있다고 한다. 리와 만물은 본과 말의 관계이며, 파생하고 파생되는 관계이다. 하나의 리가 흩어져 만물이 되고, 합하여 하나의 리로 귀결된다고 보았다.²²⁾ 그래서 인간의 심기(心氣) 작용으로 생성되는 성음(聲音)도 태극인 리가 있으므로 음양오행의 이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이러한 자연과 인간의 바탕을 기본 원리로 삼아 문자를 만든다면 ‘그 문자가 어찌 천지자연의 보편적인 문자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태어난 문자가 바로 훈민정음이다. 그러므로 ‘훈민정음’은 천지자연의 소리 이치를 담은 문자이고, ‘음양오행’은 그 이치를 보여주는

21) 『性理大全書』 권17 『易學啓蒙』 4.

22) 方立天 지음, 이기훈·황지원 옮김, 『문제로 보는 중국철학—우주·본체의 문제』, 예문서원, 1997, pp.179-180.

핵심 장치라고 말한다.²³⁾ 『훈민정음』 제자해에서도 사람의 소리에는 모두 음양오행의 이치가 있으므로 소리에 본래 담겨진 그 음양오행의 이치에 따라 자연스레 훈민정음을 만들되 ‘각 글자에 해당하는 모양을 본떠서 정음 28자를 만들었다(正音二十八字 各象其形而制之)’고 천명한다. 그러나 본뜨다(象)는 의미를 어떤 구체적인 실물에만 한정해서는 안 되며, 역(易)의 괘상(卦象)과 같이 추상적인 의미를 형상화했다는 의미까지도 포함시켜서 확장 해석을 해야 한다.

2. 훈민정음 자음의 제자원리와 역학적 의미

자음[초성]의 기본자(ㄱ·ㄴ·ㄷ·ㄹ·ㅍ·ㅑ·ㅓ·ㅕ)와 이체자(ㅇ·ㄷ·ㄷ·ㄷ)는 각기 그 발음기관의 모양이나 그 작용을 본떠서 만들었고, 나머지 자음들은 가획자(加劃字)로서 소리가 조금 더 세게 나는 정도에 따라 획을 더하여 만들었다. 자음 기본자의 상형 원리는 <표 1>에서 정리한 바와 같다. 이체자로서 아음(어금닛소리) ㅇ은 목구멍, 반설음(반헛소리) ㄷ은 혀, 반치음(반잇소리) ㄷ은 이의 모양을 본떠 각각 만들었다. 그리고 사람의 소리는 모두 오행에 근본이 있으며 사계절 및 오성(궁상각치우)과도 합치된다고 했다.

“아음(어금닛소리)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뜨고, 설음(헛소리) ㄴ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뜨고, 순음(입술소리) ㄷ은 입 모양을 본뜨고, 치음(잇소리) ㄷ은 이 모양을 본뜨고, 후음(목구멍소리) ㅇ은 목구멍 모양을 본뜨는 것이다. ㄱ은 ㄱ에 비하여 소리가 조금 세게 나므로 획을 더하였다. ㄴ에서 ㄴ, ㄷ에서 ㄷ, ㅍ에서 ㅍ, ㅑ에서 ㅑ, ㅓ에서 ㅓ, ㅕ에서 ㅕ, ㅇ에서 ㅇ, ㅇ에서 ㅇ으로 그 소리(의 세기)를 바탕으로 획을 더한 뜻은 모두 같다. (...) 무릇 사람이 소리를 내는 것은 오행에 근본이 있는 것이므로 사계절과 합하여도 어그러짐이 없고, 오음에 맞추어도 틀리지 않는다.”²⁴⁾

23) 김슬옹, 『‘훈민정음’을 만든 원리와 속성』, 『세종대왕과 훈민정음학』, 지식산업사, 2010, p.138.

24) 『訓民正音』 制字解, “初聲凡十七字. 牙音ㄱ 象舌根閉喉之形. 舌音ㄴ 象舌附上齶之形. 唇音ㅍ 象口形. 齒音ㅑ 象齒形. 喉音ㅇ 象喉形. ㄷ比ㄷ 聲出

〈표 1〉 자음 기본자의 상형

기본자	소리	상형 원리	비고
ㄱ	어금닛소리(아음)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象舌根閉喉之形]	발음작용 상형
ㄴ	혓소리(설음)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象舌附上齶之形]	
ㅁ	입술소리(순음)	입 모양[象口形]	발음기관 상형
ㅅ	잇소리(치음)	이 모양[象齒形]	
ㅇ	목구멍소리(후음)	목구멍 모양[象喉形]	

발음기관인 목구멍·어금니·혀·이·입술의 각 생태적 특징들을 해당 오행에 각각 연관시키고, 그 소리의 특징들도 각 오행의 모습에 비유하였다. 그리고 이것들을 각 계절과 오성에 배정했으며 초성의 이치 속에 음양·오행·방위 등이 있다고 하였다.²⁵⁾ 즉 목구멍은 깊고 윤택하니 물이다(喉濇而潤 水也). 어금니는 어긋나고 기니 나무이다(牙錯而長 木也). 혀는 날카롭고 움직이니 불이다(舌銳而動 火也). 이는 단단하고 자르니 쇠다(齒剛而斷 金也). 입술은 모나고 합해지니 흙이다(脣方而合 土也). 따라서 어금닛소리인 ‘ㄱ·ㅋ·ㅇ’은 목, 혓소리인 ‘ㄴ·ㄷ·ㅌ·ㄹ(반설음)’은 화, 입술소리인 ‘ㅁ·ㅂ·ㅍ’은 토, 잇소리인 ‘ㅅ·ㅈ·ㅊ·ㅌ(반치음)’은 금, 목구멍소리인 ‘ㅇ·ㅎ·ㅎ’은 수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을 정리해보면 <표 2>와 같다.

“목구멍은 깊고 윤택하니 (오행상) 수(水)이다. 그 소리가 공허하고 통하여 마치 물이 허명(虛明)해서 유통하는 것과 같다. 계절로는 겨울이

稍 故加劃. ㄴ而ㄷ ㄷ而ㅌ ㅁ而ㅂ ㅂ而ㅍ ㅅ而ㅈ ㅈ而ㅊ ㅇ而ㅎ ㅎ而ㅎ 其因聲加劃之義皆同. (….) 夫人之有聲本於五行, 故合諸四時而不悖, 叶之五音而不戾.”

- 25) 오행이란 만물의 기본요소인 목(木)·화(火)·토(土)·금(金)·수(水)의 다섯[五]가지 기운이 행(行)함을 말한다. 본래 오행은 나무·불·흙·쇠·물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5가지 기본 물질을 일컫는 말이다. 음양과 비슷하게 오행도 처음에는 자연주의적 색채가 농후했으나 전국시대에 오면서 소박했던 오행이 점차 추상화·관념화되기 시작했다. 이 무렵 제(齊)나라 직하(稷下)학파의 저술을 모은 『관자(管子)』에서 지금의 오행 순서인 ‘목-화-토-금-수’가 비로소 확정되었고, 계절·방위·천체·인체·장부·색상·음계·기후·덕성·간지(干支) 등이 오행과 긴밀히 결합되었다.

고 소리로는 우(羽)이다. 어금니는 어긋나고 기니 (오행상) 목(木)이다. 그 소리가 목구멍소리와 비슷해도 실하므로 마치 나무가 물에서 생하지만 형체가 있는 것과 같다. 계절로는 봄이고 소리로는 각(角)이다. 혀는 재빠르고 움직이니 (오행상) 화(火)이다. 그 소리가 구르고 날리므로 마치 불이 이글거리며 활활 타오르는 것과 같다. 계절로는 여름이고 소리로는 치(徵)이다. 이는 단단하고 자르니 (오행상) 금(金)이다. 그 소리가 부스러지고 걸리므로 마치 쇠가 부스러지고 단련되는 것과 같다. 계절로는 가을이고 소리로는 상(商)이다. 입술은 모나고 합해지니 (오행상) 토(土)이다. 그 소리가 머금고 넓으므로 마치 땅이 만물을 함축하고 광대한 것과 같다. 계절로는 늦여름이고 소리로는 궁(宮)이다.”²⁶⁾

〈표 2〉 자음의 역리적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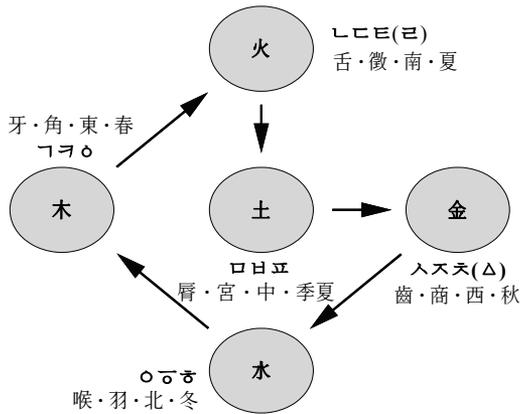
구분	소리	목구멍소리 (후음)	어금닛소리 (아음)	혓소리 (설음)	잇소리 (치음)	입술소리 (순음)
초성		ㅇ	ㄱ	ㄴ	ㄷ	ㄹ
발음기관		목구멍	어금니	혀	이	입술
발음기관 특징		깊고 윤택함	어긋나고 깊	재빠르게 움직임	단단하고 자름	모나고 합해짐
소리 특징		공허하고 통함	아무지고 실함	구르고 날림	부스러지고 걸림	머금고 넓음
오행		물(水)	나무(木)	불(火)	쇠(金)	흙(土)
오성		우	각	치	상	궁
계절		겨울	봄	여름	가을	늦여름
방위		북	동	남	서	일정한 위치 없음

사람의 소리 역시 오행에 근본이 있으므로 자음은 아설순치후(牙舌脣齒喉), 즉 목화토금수의 오행 상생(相生) 순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자음 기본자의 상형 원리를 설명하면서는 ‘아설순치후’의 순으로 설

26) 『訓民正音』 制字解, “喉邃而潤, 水也. 聲虛而通, 如水之虛明而流通也. 於時爲冬, 於音爲羽. 牙錯而長, 木也. 聲似喉而實, 如木之生於水而有形也. 於時爲春, 於音爲角. 舌銳而動, 火也. 聲轉而颯, 如火之轉展而揚揚也. 於時爲夏, 於音爲徵. 齒剛而斷, 金也. 聲屑而滯, 如金之屑瑣而鍛成也. 於時爲秋, 於音爲商. 脣方而合, 土也. 聲含而廣, 如土之含蓄萬物而廣大也. 於時爲季夏, 於音爲宮.”

명했다. 그러나 발음기관의 위치에 따라서는 가장 안쪽 목구멍에서부터 가장 바깥쪽 입술로 설명한다. 그래서 자음 17자의 발음기관을 중심으로 역리적 분류를 하면서는 ‘후아설치순’의 순으로 설명했다. 이렇게 해서 각 자음에 방위도 함께 배정하였다.

“목구멍은 뒤에 있고, 어금니는 그 다음이므로 목구멍소리는 북쪽, 어금닛소리는 동쪽이 된다. 혀와 이가 또한 그 다음이므로 혀소리는 남쪽, 잇소리는 서쪽이 된다. 입술은 끝에 있으므로 흙은 일정한 위치가 없고 사계절에 붙어 왕성하게 한다는 뜻이다. 이런즉 초성 가운데 스스로 음양과 오행, 방위의 수가 있는 것이다.”²⁷⁾



<그림 2> 자음과 오행의 상생 관계도

입술(소리)인 순(음)을 ‘계하(季夏, 늦여름)’에 배정했다가 곧 이어서 ‘흙은 일정한 위치가 없고 사계절에 붙어 왕성하다(寄旺四季)’는 뜻으로 바꿨는데, 『주자어류』에서 “흙의 기운은 정해진 위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역가(曆家)는 네 계절 (마지막) 달의 18일을 흙의 기운으로 삼아서 72일(4×18일)을 (흙의 기운에) 배당한다.”²⁸⁾라고 말한

27) 『訓民正音』 制字解, “喉居後而牙次之, 北東之位也. 舌齒又次之, 南西之位也. 唇居末, 土無定位而寄旺四季之義也. 是則初聲之中, 自有陰陽五行方位之數也.”

내용과 같다.²⁹⁾

이체자 어금닛소리 ㅇ과 관련해서는 “(ㅇ자를) 목구멍에서 본떠 만들었으나 (….) 대개 목구멍은 물[水]에 속하고 어금니는 나무[木]에 속하는데, ㅇ이 비록 (오행상 木인) 어금닛소리에 속해 있어도 (오행상 水인 목구멍소리) ㅇ(이음)과 비슷한 것은 마치 나무의 움이 물에서 나와 부드러워 아직 물 기운이 많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³⁰⁾라고 설명한다.

또한 오행상 木인 어금닛소리 ㄱ의 가획자 ㅋ·ㄱ과 관련해서는 나무의 자연 성장 과정을 비유해 설명한다.

“ㄱ은 나무가 바탕을 이룬 것이요, ㅋ은 나무가 번성하게 자란 것이요, ㄱ은 나무가 나이 들어 굳세게 된 것이므로 여기까지 모두 (오행상 木인) 어금니에서 본뜬 것이다.”³¹⁾

자질문자(資質文字, feature system)로서 훈민정음은 같은 종류의 소리를 내는 기호들은 하나의 기호를 공유한다.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는 먼저 목소리가 나오는 발성기관과 발음작용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다섯 기본 글자(ㄱ·ㄴ·ㄷ·ㄹ·ㅇ)에 소리가 거세지는 음성적 특징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획을 더한 것이다. 이리하여 초성 17자 중 14자가 만들어졌으며, 나머지 3자는 예외적으로 만들어졌다. 제자해에 의하면,

28) 『朱子語類』 권1 理氣·上, “土無定位, 故今曆家以四季之月十八日爲土, 分得七十二日.”

29) 늦여름(季夏)은 사계절을 오행에 근거하여 굳이 다섯으로 구분하기 위한 관념의 소산으로 생각되는데, 1년 중 계하의 계절적 시기 배당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즉, 여름과 가을 사이 무더운 한여름의 시기로 해석하는 경우와 사계절 각각이 다음 계절로 바뀌는 사이의 환절기로 해석하는 경우이다. 權依經·李民聽 저, 김은하·권영규 역, 『오운육기학 해설』, 법인문화사, 2000, p.66.

30) 『訓民正音』 制字解, “今亦取象於喉, (….) 盖喉屬水而牙屬木, ㅇ雖在牙而與ㅇ相似 猶木之芽生於水而柔軟, 尙多水氣也.”

31) 『訓民正音』 制字解, “ㄱ木之成質, ㅋ木之盛長, ㄱ木之老壯, 故至此乃皆取象於牙也.”

“그 소리에 따라서 획을 더하는 뜻은 모두 마찬가지다. 다만 ㅇ은 다르다. 반혓소리 ㄹ과 반잇소리 △도 혀나 이의 모양을 본뜨긴 했으나 그 체(體, 바탕으로 삼은 기본 글자, ㄴ·ㄷ)를 달리하여 획을 더한 뜻은 없다.”³²⁾

고 하였다. 즉, ㅇ은 〇, ㄹ은 ㄴ, △은 ㅅ에 각각 획을 더한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나, 이것은 단순히 〇·ㄴ·ㅅ과 그 꼴을 달리했을 뿐이지 소리가 더 세기 때문에 획을 더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³³⁾ 제자해에 따른 자음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ㄱ→ㅋ(어금닛소리), ㄴ→ㄷ→ㅌ(혓소리), ㅁ→ㅂ→ㅃ(입술소리), ㅅ→ㅆ(잇소리), ㅇ→ㅎ→ㅎ(목구멍소리), 〇·ㄹ·△(이체)

자음의 순서상 이체자 〇·ㄹ·△를 뒤에 따로 두었다. 가령 ㅇ은 『훈민정음』 예의와 용자례에서는 어금닛소리로 분류되어 ㄱ과 같이 묶여 있지만 제자해에서는 이체를 형성하는 ㄹ·△과 같이 뒤에 놓여 설명되고 있다. 이는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에서 소리뿐만 아니라 형태적인 요소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사실을 말해준다.³⁴⁾

즉 훈민정음 창제자들은 음소(音素)기호 뿐 아니라 공유(共有)기호도 함께 고려하였던 것이다. 자음 각 계열의 음성적 특징인 음성자질(音聲資質)을 인식하고 이를 글자의 모양에 반영했다고 하여 훈민정음을 자질문자라고 부른다. 자음의 기본 글자를 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혓소리·입술소리·목구멍소리는 불청불탁(不淸不濁)인 ㄴ·ㄷ·ㅇ을 기본으로 정했으며³⁵⁾ 어금닛소리와 잇소리는 전청(全淸)인 ㄱ·

32) 『訓民正音』 制字解, “其因聲加畫之義皆同. 而唯ㅇ爲異. 半舌音ㄹ, 半齒音△, 亦象舌齒之形而異其體, 無加畫之義焉.”

33) 허웅, 『국어학-우리말의 오늘·어제』, 샘문화사, 1983, p.306.

34) 김다운, 『훈민정음의 비밀』, 생각의나무, 2008, pp.353-354쪽 참조.

35) 『訓民正音』 制字解, “ㄴ·ㄷ·ㅇ은 그 소리가 가장 거세지 않은 까닭으로 차례로는 비록 뒤에 있으나(불청불탁이나) 모양을 본떠서 글자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이들을 시초로 삼았다(ㄴㄷㅇ其聲最不厲, 故次序雖在於後, 而象形制字則爲之始).”

수를 기본으로 삼았던 까닭도 음성적 특징 외에 형태적 특징도 중요하게 고려했기 때문이다.

3. 훈민정음 모음의 제자원리와 역학적 의미

수(數)는 인간이 살아오면서 경험에 의해 산출한 다양한 문화적 상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수는 문화권에 따라 서로 다른 독특한 상징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3이라는 수는 세계 많은 문화권에서 다 같이 길수(吉數)로 여기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3에 대해 보다 뚜렷한 길수관념을 형성하고 있어서 일상에서뿐 아니라 우주의 구성과 생성·변화까지도 3으로 상징하였다. 따라서 3은 자연과 인간의 우주론적 조화 질서의 이치인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의 세계 구조를 나타낸다.

주역의 삼재 사상은 하늘[乾]을 아버지[父]로 보고, 땅[坤]을 어머니[母]로 보며, 인간[人]을 포함한 만물을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난 자식[子]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신성(神性)과 물성(物性)의 화합과 통일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조화사상이다. 또한 우주 안에서 인간의 주체성을 밝혀주는 논리 체계이다.³⁶⁾ 역의 삼재론적 세계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유가뿐 아니라 도가의 우주론적 존재인식도 잘 알 수 있다.

다만 ‘태극→음양→사상→팔괘→만물’, 곧 ‘一→二→四→八→만물’이라는 생성 방식은 도가의 삼재론과 차이가 있다. “도(道)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는다. 만물은 음(陰)을 짙어지고 양(陽)을 품으며, 텅 빈 기운[沖氣]으로써 조화를 이룬다.”³⁷⁾라는 『노자』의 내용은 ‘음기·양기·충기’의 결합과 조화로써 ‘도→一→二→三→만물’, 곧 ‘무극→태극→음양→삼원→만물’로 우주만물이 생성되는 도가의 인식체계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도

36) 송재국, 『주역의 삼재사상과 인간이해』, 『동서철학연구』 17, 한국동서철학회, 1999, pp.26·34·35.

37) 『老子』 42장,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

가의 음양론과 삼재론적 인식도 성리학을 통해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 수용되었다.

중성[모음]의 제자 원리를 살펴보면, 기본자인 ‘·’은 하늘을 본떠 둥글게 하고(形之圓 象乎天也), ‘一’은 땅을 본떠 평평하게 하고(形之平 象乎地也), ‘丨’은 사람을 본뜨되 그 서있는 모양으로 하여(形之立 象乎人也) 삼재(三才)의 이치를 갖추었다고 한다. ‘·’는 하늘의 성정을 닮아 천(天)으로서 양이며, ‘一’는 땅의 덕성을 닮아 지(地)로서 음이며, ‘丨’는 하늘과 땅이 화합한 사람으로서 인(人)이며 음양을 겸비하고 있다. ‘·一丨’의 생성을 천지가 개벽하고 인간이 출현하는 천개·지벽·인생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음성학적으로 입속 가장 깊은 곳에서 발음되는 것이 ‘·’(후설모음)이고, 그 다음으로 ‘一’(중설모음), ‘丨’(전설모음) 순이다. 이렇게 입속에서 발음되는 순서를 12지에 비겨 ‘·’는 자(子), ‘一’는 축(丑), ‘丨’는 인(寅)에 연관시켰다. 모음 기본자의 제자에 관한 역학적 의미는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 모음 기본자의 상형

기본자	소리 특징	의미	상형	음양	삼재
·	혀가 움츠러들고 깊음	하늘이 자(子)에서 열림[天開]	하늘의 둥근 모양	양	천
一	혀가 조금 움츠러들고 깊지도 얕지도 않음	땅이 축(丑)에서 퍼짐[地開]	땅의 평평한 모양	음	지
丨	혀가 움츠러들지 않고 얕음	사람이 인(寅)에서 생김[人生]	사람의 서있는 모양	음양	인

모음자의 생성원리를 ‘태극→양의→사상→팔괘’의 과정으로 본다면 초출자(初出字) ‘ㄱ ㅏ ㅑ ㅓ’는 사상에 해당하고, 재출자(再出字) ‘ㄴ ㅕ ㅗ ㅛ ㅜ ㅠ ㅡ’는 팔괘에 해당한다. 초출자와 재출자의 제자 기준과 그 역학적 의미는 <표 4>, <표 5>에서 정리한 내용과 같다.

이 여덟 글자에 하늘과 양을 상징하는 ‘·’가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은 양이 음을 거느리고 만물에 두루 흐르는 것³⁸⁾과 같은 의미이다. 그리고 (중성을 만물에 있어) 하늘·땅·사람을 본뜬으로써 삼재의

이치[道]를 갖추었다. 그러나 삼재가 만물의 먼지가 되되 하늘이 삼재의 처음이 된다. 이것은 ‘·-ㅣ’ 세 자가 여덟 소리[글자]의 머리가 되되 ‘·’가 세 자의 으뜸이 되는 것³⁹⁾과 같다고 인식한다.

<표 4> 모음 초출자(初出字)의 역학적 의미

초출자	제자 기준 (字形)	의의	처음 나옴 (音聲)	처음 생김 (字形)
ㄱ	·+-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사귀	하늘과 땅에서 비롯된 것이라 처음으로 나온 것 (初出)	하나가 동그란 것(·)은 처음으로 생겨난 뜻 (初生)
ㅋ	ㅣ+·	천지의 작용이 사물에 나타나 되 사람을 기다려서 이름		
ㆁ	-+·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사귀		
ㆁ	·+ㅣ	천지의 작용이 사물에 나타나 되 사람을 기다려서 이름		

<표 5> 모음 재출자(再出字)의 역학적 의미

재출자	제자 기준 (音聲)	의의	거듭 나옴 (音聲)	거듭 생김 (字形)
ㄲ	ㅣ⇒ㄱ	사람(ㅣ)을 겸하는 것은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 양(음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	ㅣ에서 시작되어 사람(ㅣ)을 겸하므로 거듭해서 나온 것 (再出)	둘이 동그란 것(·)은 거듭해서 생겨난 뜻 (再生)
ㅋ	ㅣ⇒ㅏ			
ㆁ	ㅣ⇒ㆁ			
ㆁ	ㅣ⇒ㄱ			

모음 11자에 대한 역학적 의미를 정리해보면 <표 6>과 같다. 먼저 모음의 음양 배분과 관련하여 ‘ㄱㅏㅏㅏㅏ’의 동그라미(·)가 위와 밖에 있는 것은 그것들이 하늘에서 생겨나 양이 되기 때문이다. ‘ㄱㅏㅏㅏㅏ’의 동그라미(·)가 아래와 안에 있는 것은 그것들이 땅에서 생겨나 음이 되기 때문이다.⁴⁰⁾ 그리고 물(ㄱㅏㅏ)과 불(ㅏㅏ)은 아직 기(氣)에서

38) 『訓民正音』 制字解, “·之貫於八聲者, 猶陽之統陰而周流萬物也.”
 39) 『訓民正音』 制字解, “取象於天地人而三才之道備矣. 然三才爲萬物之先, 而天又爲三才之始. 猶·-ㅣ三字爲八聲之首, 而·又爲三字之冠也.”
 40) 『訓民正音』 制字解, “ㄱㅏㅏㅏㅏ之圓居上與外者, 以其出於天而爲陽也. ㅏㅏ

벗어나지 못하고 음과 양이 서로 사귀어 어울리는 처음이기 때문에 (입술이) 닫힌다(모아진다). 나무(ㄱ)와 쇠(ㅋ)는 음과 양이 (만물의) 바탕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술이) 열린다(펴진다).⁴¹⁾ 그러므로 모음 가운데도 스스로 음양과 오행 그리고 방위의 수가 있다고⁴²⁾ 말하는 것이다.

“그가 첫 번째로 하늘에서 나니 천수(天數)로 1이고 물을 낳는 자리다. ㄱ가 그 다음으로 나니 천수로 3이고 나무를 낳는 자리다. ㄱ가 첫 번째로 땅에서 나니 지수(地數)로 2이고 불을 낳는 자리다. ㅋ가 그 다음으로 나니 지수로 4이고 쇠를 낳는 자리다. ㅈ가 두 번째로 하늘에서 나니 천수로 7이고 불을 이루는 수이다. ㅊ가 그 다음으로 나니 천수로 9이고 쇠를 이루는 수이다. ㅊ가 두 번째로 땅에서 나니 지수로 6이고 물을 이루는 수이다. ㅋ가 그 다음으로 나니 지수로 8이고 나무를 이루는 수이다. (...) ·는 천수로 5이고 흙을 낳는 자리다. ㅡ는 지수로 10이고 흙을 이루는 수이다. ㅣ만이 자리나 수가 없는 것은 대개 사람이란 무극(無極)의 참[眞]과 이오(二五, 음양과 오행)의 정(精)이 미묘하게 어울리고 영기어서 진실로 정위(定位)와 성수(成數)로는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⁴³⁾

<표 6> 모음의 역리적 분류

중성	수	음양	오행	방위	천지수	생위/성수
ㄱ	1	양	수	북	天一	生水之位
ㄷ	2	음	화	남	地二	生火之位
ㄴ	3	양	목	동	天三	生木之位
ㄷ	4	음	금	서	地四	生金之位
·	5	양	토	중	天五	生土之位
ㅈ	6	음	수	북	地六	成水之數
ㅊ	7	양	화	남	天七	成火之數
ㅋ	8	음	목	동	地八	成木之數
ㆁ	9	양	금	서	天九	成金之數
ㅡ	10	음	토	중	地十	成土之數
ㅣ	無數	중성	無行	無位	無天地數	無位數

ㅈ ㅋ 之圓居下與內者, 以其出於地而爲陰也.”

41) 『訓民正音』 制字解, “水火未離乎氣, 陰陽交合之初, 故闔. 木金陰陽之定質, 故闔.”

42) 『訓民正音』 制字解, “是則中聲之中, 亦自有陰陽五行方位之數也.”

1에서 10까지의 수를 천수(天數)와 지수(地數)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은 『주역』 계사전에서 비롯된다. 1·2·3·4·5는 안에 있으면서 만물의 생명을 낳는다하여 생수(生數)라 하고, 6·7·8·9·10은 밖에 있으면서 만물의 형체를 이룬다하여 성수(成數)라 한다. 성수는 생수에 각기 5(중궁의 생수)를 더하여 얻는 것으로서, 생수는 성수를 낳는 체(體)가 된다. 천지수를 모두 합하면 55의 대연수(大衍數)가 나온다.

“천1, 지2, 천3, 지4, 천5, 지6, 천7, 지8, 천9, 지10이니 천수가 5개이고 지수가 5개이다. 5위가 서로 얻으며 각각 합함이 있으니 천수가 25이고 지수가 30이다. 천지의 수가 모두 55이니 이것으로써 변화를 이루며 신묘한 작용을 행한다.”⁴⁴⁾

지금까지 살펴본 모음[중성]에 관한 역학적 의미를 오행 상생(相生)을 기반으로 하는 선천하도(先天河圖)에 비추어 도상으로 나타낼 수 있다.(그림 3, 그림 4) 이처럼 모음을 하도에 맞추어 배열한 도상은 이미 이정호⁴⁵⁾·유정기⁴⁶⁾·유승국⁴⁷⁾·이성구⁴⁸⁾의 논저에도 나와 있다. 그러나 중앙 5·10 토의 기본자 ‘·-|’의 배열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정호와 유승국은 세 글자를 모두 합해서 十자형을 이루고, 유정기는 ‘-|’는 없이 ‘·’만 있고, 이성구는 ‘|’는 없이 ‘·-’만 나타내고 있다. 사람의 서있는 모양을 본떴으며 삼재에서 인(人)을 의미하는 ‘|’는 사람이 그런 것처럼 음양과 오행을 두루 겸비하였기

43) 『訓民正音』 制字解, “一初生於天, 天一生水之位也. 卜次之, 天三生木之位也. 丌初生於地, 地二生火之位也. ㄷ次之, 地四生金之位也. ㄹ再生於天, 天七成火之數也. ㅍ次之, 天九成金之數也. ㅊ再生於地, 地六成水之數也. ㅋ次之, 地八成木之數也. (···)·天五生土之位也. 一地十成土之數也. |獨無位數者, 蓋以人則無極之眞, 二五之精 妙合而凝, 固未可以定位成數論也.”

44) 『周易』 繫辭上傳 9, “天一地二天三地四天五地六天七地八天九地十. 天數五, 地數五. 五位相得, 而各有合. 天數二十有五, 地數三十. 凡天地之數, 五十有五. 此所以成變化, 而行鬼神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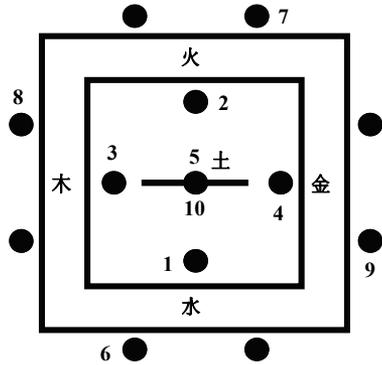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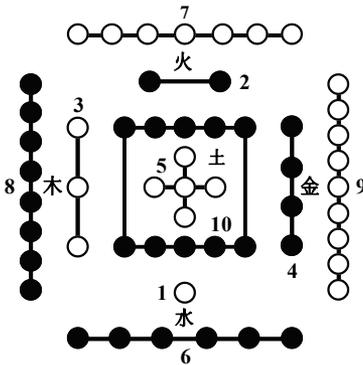
45) 이정호, 『훈민정음의 구조원리』, 아세아문화사, 1978, p.81.

46) 유정기, 『국학문제논집』, 상지사, 1979, p.321.

47) 유승국, 『한국의 유교』,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0, p.194.

48) 이성구, 『훈민정음연구』, 동문사, 1985, p.99.

때문에 다른 모습과 달리 그 음양과 오행, 방위와 수를 고정시켜 논할 수 없다(1獨無位數者)는 『훈민정음』 제자해의 논리를 따른다면 이성구의 도상이 보다 합당하다. 앞서 살펴본 <그림 2> 자음과 오행의 상생 관계도도 좌선(左旋)하는 하도에 비추어 그린 것이다.



<그림 3> 선천 하도(河圖)의 수리와 오행 <그림 4> 모음[중성]의 수리와 오행

『주역』은 “역의 글이 넓고 크게 다 갖추어서 천도(天道)가 있으며, 인도(人道)가 있으며, 지도(地道)가 있으니 삼재를 겸해서 둘로 한다. 그러므로 여섯이니, 여섯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삼재의 도이다.”⁴⁹⁾라고 했으며, 나아가 “그 옛날 성인이 역을 지음은 장차 그로써 성명(性命)의 이치를 따르고자 함이니, 이로써 하늘의 도를 세워 음양(陰陽)이라 하고, 땅의 도를 세워 유강(柔剛)이라 하고, 사람의 도를 세워 인의(仁義)라 하니 삼재를 겸하여 두 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이 여섯 획으로 괘를 이루고, 음을 나누고, 양을 나누며, 유와 강을 차례로 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은 여섯 자리를 갖추어야 비로소 완성된다.”⁵⁰⁾라고 하였다. 즉, 옛 성인이 성명(性命)의 이치에 순응하여

49) 『周易』繫辭下傳, “易之爲書也, 廣大悉備, 有天道焉, 有地道焉, 有人道焉. 兼三材而兩之, 故六, 六者, 非它也, 三才之道也.”

50) 『周易』說卦傳, “昔者聖人之作易也, 將以順性命之理. 是以立天之道曰陰與陽, 立地之道曰柔與剛, 立人之道曰仁與義. 兼三才而兩之, 故易六畫而成卦,

천도(天道)·지도(地道)·인도(人道)를 수립하였고, 이 삼재지도(三才之道)를 그 두 구성요소[陰·陽·柔·剛·仁·義]로 각각 구분해서 여섯 효[六爻]를 갖춰야만 비로소 역이 완성된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훈민정음』에서는 중성을 천도(天道), 초성을 지도(地道)에 관련시켜 설명한다. 중성은 음양(陰陽)의 하늘의 이치이고 초성은 강유(剛柔)의 땅의 이치이다. 중성은 하나가 깊으면[深] 하나가 얇고[淺], 하나가 닫히면[闔] 하나가 열린다[闢]. 이는 만물의 발생을 위해 음과 양이 나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오행의 기운이 갖춰진 것으로 하늘의 작용[用]이다. 초성은 허(虛)하거나 실(實)하고, 날리거나[颺] 걸리고[滯], 무겁거나[重] 가볍다[輕]. 이는 강(剛)과 유(柔)가 드러나서 오행의 바탕이 이루어진 것으로 땅의 공(功)이다. 이런 의미를 정리해보면 <표 7>과 같다.

<표 7> 초성·중성의 역학적 의미

소리	이치	소리 특징	분저(分著)	기질(氣質)	용공(用功)
초성	지도(地道)	허함(후음)·실함(아음) 날림(설음)·걸림(치음) 무겁거나 가벼움(순음)	강유(著)	오행의 바탕(質)	땅의 공(功)
중성	천도(天道)	깊음(·)·얇음(ㅣ) 입술 모음(ㅏㅓㅕㅗㅛㅜㅝ) 입술 퍼짐(ㅑㅓㅕㅗㅛㅜㅝ)	음양(分) 양모음(ㅏㅓㅕㅗㅛㅜㅝ) 음모음(ㅑㅓㅕㅗㅛㅜㅝ)	오행의 기운(氣)	하늘의 작용(用)

4. 훈민정음 합자의 역학적 의미

『훈민정음』에서는 초중성이 합하여 완전한 하나의 글자[음절]를 이루는 것에 대하여 천지인 삼재와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다. 초성은 발동하는 뜻이 있으니 하늘[天]의 일이고, 중성은 그치고 정해지는 뜻이 있으니 땅[地]의 일이고, 중성은 초성의 생겨남을 이어받아 중성의 이름을 연결해주시어 사람[人]의 일이다.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표 8>과 같다. 사람은 동과 정을 겸하고 있고 하늘과 땅의 작용을 이어주고

分陰分陽，迭用柔剛，故易六位而成章。”

있다. 중성 모음이 중심이 되어서 초성·종성의 자음과 화합하여 하나의 완성된 글자를 형성한다는 훈민정음 합자(合字)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초성·중성·종성이 합쳐져 이루어진 글자로 말할 것 같으면, 동(動)과 정(靜)이 서로 뿌리가 되고 음과 양이 서로 변하는 뜻이 있으니, 동이란 하늘[초성]이요, 정이란 땅[중성]이며, 동과 정을 겸하는 것은 사람[중성]이다.”⁵¹⁾

〈표 8〉 초중종성의 역학적 의미

소리	삼재	동정(動靜)	일	의의	오행 작용
초성	천	동	하늘 일	발동함	신의 운행(정신의 움직임)
중성	인	동정	사람 일	초성의 생김을 잇고 중성의 이룸을 연결	인의예지신-신의 운행 간심비폐신-바탕의 이룸
종성	지	정	땅의 일	그치고 정해짐	바탕의 이룸(물질의 이룸)

중성이 깊고 얕음[深淺]과 열림과 닫힘[闔關]으로 앞에서 부르면, 초성이 (아설순치후) 오음의 청탁으로 뒤에서 화합하여(중성을 중심으로 서로 결합하여) 음절의 첫소리[초성]가 되기도 하고 끝소리[종성]가 되기도 하니, 만물이 땅에서 처음 나서 다시 땅으로 되돌아감을 알 수 있다.⁵²⁾ 그리고 글자[음절]의 중심은 중성에 있어서 초성과 종성이 (중성과) 어울려서 글자를 이루는데, 이것은 천지가 만물을 낳고 이뤄도 그 마름해서 이루고 보필해서 돕는 것은 반드시 사람에게 힘입음과 같다.⁵³⁾ 태초의 원기(元氣)가 두루 흘러 다하지 않고, 사시(四時)의 운행이 순환하여 끝이 없는 까닭에 (원형이정의 이치에 따라) 정(貞)이 다시 원(元)이 되고, 겨울이 다시 봄이 되는 것이니 초성이 다시

51) 『訓民正音』 制字解, “以初中終合成之字言之, 亦有動靜互根陰陽交變之義焉. 動者, 天也. 靜者, 地也. 兼互動靜者, 人也.”

52) 『訓民正音』 制字解, “中聲以深淺闔關唱之於前, 初聲以五音清濁和之於後, 而爲初亦爲終, 亦可見萬物初生於地, 復歸於地也.”

53) 『訓民正音』 制字解, “蓋字韻之要, 在於中聲, 初終合而成音. 亦猶天地生成萬物, 而其財成輔相則必賴乎人也.”

중성이 되고, 중성이 다시 초성이 되는 것 또한 같은 이치이다.⁵⁴⁾

『훈민정음』 합자해(合字解)에서는 사성(四聲)의 성조(聲調)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사성을 사계절의 순환과 그에 따른 만물의 변화 양상과 관련시키고 있는데 여기에도 역학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평성(平聲)·상성(上聲)·거성(去聲)·입성(入聲)을 춘하추동 계절의 순환에 맞춰 배열하고, 이에 따라 만물이 생장수장(生長收藏)하는 과정을 통해 사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표 9>와 같다.

<표 9> 사성(四聲)의 역학적 의미

사성	방점	용례	의미			
평	없음	활[弓]	편안하고 부드러움 (安而和)	봄	만물이 천천히 피어남	
상	2	:돌[石]	부드럽고 높음 (和而舉)	여름	만물이 점점 무성해짐	
거	1	·갈[刀]	높고 썩씩함 (舉而壯)	가을	만물이 무르익음	
입	평	없음	간[柱] 념[齋]	빠르고 막힘 (促而塞)	겨울	만물이 숨고 감추어짐
	상	2	:난[穀] :집[糴]			
	거	1	·물[釘] ·입[口]			

IV. 자음에서 순음과 후음의 오행 분별

『훈민정음』에서는 초성 17자를 아음·설음·순음·치음·후음 및 반설음·반치음으로 분류한다. 초성을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중국 음운학(音韻學)의 영향이다. 중국의 『광운(廣韻)』·『고금운회거요(古今韻會舉要)』·『홍무정운(洪武正韻)』 등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훈민정음』은 “무릇 사람이 음성을 갖고 있는 것은 오행에 근본하기 때문에 사계절과 합하여 보아도 거슬림이 없고, 오음에 맞추어도 틀

54) 『訓民正音』 制字解, “一元之氣, 周流不窮, 四時之運, 循環無端, 故貞而復元, 冬而復春. 初聲之復爲終, 終聲之復爲初, 亦此義也.”

리지 않는다.”라고 천명하면서 <표 2>와 같이 자음을 오음(아설순치후)과 오성·오행·계절·방위 등에 배정하였다.

자음을 이와 같이 오음·오행·계절 등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은 『훈민정음』 창제자의 독창적인 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송대 사마



<그림 5> 『훈민정음』 해례 제자해

광(司馬光, 1019-1086)이 짓고 명대 소광조(邵光祖)가 보정했다며 『사고전서(四庫全書)』에 수록되어 있는 중국 최고(最古)의 등운서(等韻書)인 『절운지장도(切韻指掌圖)』의 ‘변자모차제례(辨字母次第例, 자모의 차례를 분별하는 예)’에서도 『훈민정음』과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⁵⁵⁾ 『절운지장도』에서 ‘자모가 상생하는 뜻을 취한다’는 것은 아설순치후 오음을 목화토금수 오행의 상생 순서로 배속했다는 의미로서 『훈민정음』에서 오음의 오행 배속과 일치한다.

“무릇 자모란 그 성음의 올바름을 취하여 세우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데, 근본을 세움으로써 성음이 이로 말미암아 생긴다. 그러므로 36자모를 모태로 해서 384성이 나오니 자모가 상생하는 뜻을 취하는 것이다. 일기(一氣)가 나옴으로 해서 (성음에) 청탁(淸濁)의 차례가 있고 경중(輕重)의 차례가 있으며, 합하여 오음(五音)이 되고 운행하여 사시(四時)가 되는 것이다. 맨 처음의 아음은 봄의 상이며 각음이고 목행이다. 그 다음의 설음은 여름의 상이며 치음이고 화행이다. 그 다음의 순음은 늦여름의 상이며 궁음이고 토행이다. 그 다음의 치음은 가을의 상이며 상음이고 금행이다. 그 다음의 후음은 겨울의 상이며 우음이고 수행이다. 오음의 나옴이 사시의 운행과 같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⁵⁶⁾

55) 이성구, 앞의 책, p.75.

56) 『切韻指掌圖』 권3 辨字母次第例, “夫字母者, 取其聲音之正, 立以爲本, 本立則聲音由此而生. 故曰母以三十六字母, 演三百八十四聲, 取字母相生之義. 是故一氣之出, 淸濁有次, 輕重有倫, 合之以五音, 運之若四時. 故始牙音春之象也, 其音角, 其行木. 次曰舌音夏之象也, 其音徵, 其行火. 次曰唇音季夏之象也, 其音宮, 其行土. 次曰齒音秋之象也, 其音商, 其行金. 次曰喉音冬之象

그런데 자음을 오음·오성·오행 등에 배정함에 있어 『훈민정음』과 일부 다른 견해도 있다. 그 대표적으로 신경준(申景濬, 1712-1781)의 『훈민정음운해(訓民正音韻解)』에서는 순음(唇音, 입술소리)과 후음(喉音, 목구멍소리)에 대한 배정이 『훈민정음』과 다르다. 『훈민정음』에서는 순음이 궁성(宮聲-土), 후음이 우성(羽聲-水)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훈민정음운해』에는 순음이 우성, 후음이 궁성으로 되어 있다. 『훈민정음』과 『훈민정음운해』의 순음과 후음에 대한 설명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목구멍은 깊고 윤택하니 (오행상) 수(水)이다. 그 소리가 공허하고 통하여 마치 물이 허명(虛明)해서 유통하는 것과 같다. 계절로는 겨울이고 소리로는 우(羽)이다. (...) 입술은 모나고 합해지니 (오행상) 토(土)이다. 그 소리가 머금고 넓으므로 마치 땅이 만물을 함축하고 광대한 것과 같다. 계절로는 늦여름이고 소리로는 궁(宮)이다.”⁵⁷⁾ - 『훈민정음』

“궁(宮)은 중(中)이므로 중앙에 위치하여 사방으로 통하고 만물의 생육을 창시하고 사성(四聲)의 버리가 된다. 그 소리는 주로 합하는 것이라 그 모양은 ○이 되는데 이것은 토(土)의 원만하고 사방에 두루 미치며 모자람이 없음을 나타내는 상이다. (...) 우(羽)는 취(聚)이니 만물이 모여 감춰지고 하늘을 덮는 것이다. 그 소리는 주로 토(吐)하는 것이라 그 모양은 □이 되는데 이것은 물이 모여 구멍에 가득 찼음을 나타내는 상이다. (...) 후아치(喉牙齒)는 토목금(土木金)에 속하므로 그 모양이 고요하고, 순설(唇舌)은 수화(水火)에 속하므로 그 모양이 움직이는 것이니.”⁵⁸⁾ - 『훈민정음운해』

이런 차이는 중국 운서(韻書)인 『칠음략(七音略)』과 『사성등자(四聲等子)』 간에도 나타난다. 송나라 정초(鄭樵)의 『칠음략』은 후음을 궁

也, 其音羽, 其行水. 所謂五音之出, 猶四時之運者, 此也.”

57) 『訓民正音』 制字解, “喉邃而潤, 水也. 聲虛而通, 如水之虛明而流通也. 於時爲冬, 於音爲羽. (...) 唇方而合, 土也. 聲含而廣, 如土之含蓄萬物而廣大也. 於時爲季夏, 於音爲宮.”

58) 『訓民正音韻解』 <象形> · <象唇舌>, “宮, 志云中也. 居中央暢四方, 倡始施生, 爲四聲之綱也. 其聲主合, 故其象爲○, 是土之圓滿周徧四方無缺之象也. (...) 羽, 志云聚也. 物聚藏而宇覆之也. 其聲主吐, 故其象爲□, 是水之聚會而盈坎之象也. (...) 蓋喉牙齒屬土木金, 其形靜, 唇舌屬水火, 其形動,”

성, 순음을 우성에 대응시키는데 반해, 저술자와 저술 시기가 불분명한 『사성등자』의 『칠음강목(七音綱目)』에서는 후음을 우성, 순음을 궁성에 대응시키고 있다. 이러한 오음에 대응하는 오성의 명칭 차이는 『옥편(玉篇)』에서 비롯된 오음과 오성의 대응에 그 동안 변화가 생겼던 것을 『사성등자』에서 비로소 반영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원래 음악 용어이던 오성의 명칭이 성모(聲母, 자음)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면서 일정한 음계 상의 연관성이 없이 명칭의 대응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혼란에서 기인한다.⁵⁹⁾

“이 책[사성등자]의 『칠음강목』은 ‘방방병명비부봉미(幫滂並明非敷奉微)’의 순음을 궁성으로 하고, ‘영효압유(影曉匣喻)’의 후음을 우성으로 하여 오음에 관한 『옥편』의 옛 것을 많이 바꾸었다.”⁶⁰⁾

1448년(세종 30) 신숙주(申叔舟) 등이 세종의 명으로 편찬한 우리나라 최초의 운서인 『동국정운(東國正韻)』은 1297년 원대 초 응충(熊忠)이 저술한 중국의 운서 『고금운회거요(古今韻會舉要)』를 저본으로 해서 『고금운회거요』의 초성 36자모를 23자모로 통합하였다. 이는 훈민정음의 초성 17자에 전탁음 6자(ㄱ ㅋ ㆁ ㆁ ㅍ ㅍ)를 합한 체계이다. 『고금운회거요』는 36자모를 오성(궁상각치우)으로 배속하되 이를 오음(아설순치후)으로 배속하지는 않았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각[見]-아음, 치[端]-설음, 궁[幫]-순음, 상[精]-치음, 우[影]-후음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훈민정음』의 오성-오음 배속과 동일하다. 그러나 『동국정운』에서는 이와 달리 우-순음-水, 궁-후음-土로 우와 궁을 『훈민정음』과 다르게 배정하고 있다.

1375년 명대 초에 편찬된 『홍무정운(洪武正韻)』은 당시 중국음의 표준으로 인식되었는데, 이를 기저로 신숙주 등이 한자의 실질적인 화음(華音)을 정확하기 나타내기 위해 1455년(단종 3)에 『홍문정운역

59) 이옥주, 『《사성등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53 참조.

60) 『四庫全書總目』 권42 經部 42 <四聲等子>, “此書七音綱目, 以幫滂並明非敷奉微之唇音爲宮, 影曉匣喻之喉音爲羽, 頗變玉篇五音之舊.”

훈(洪武正韻譯訓)』을 편찬했다. 『홍무정운역훈』은 『홍무정운』의 초성 31자모체계를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우-순음-水, 궁-후음-土로 우와 궁을 『훈음정음』과 다르게 배정하고 있다. 이러한 배속은 최세진(崔世珍, 1468-1542)이 1517년(중종 12)에 편찬한 운서인 『사성통해(四聲通解)』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최세진은 한자음을 정하는 기준이 『홍무정운』에 있음을 범례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박성원(朴性源)이 1747년(영조 23)에 편찬한 운서인 『화동정음통석운고(華東正音通釋韻考)』도 범례 첫머리에 「오음초성도(五音初聲圖)」를 실으면서 우-순음, 궁-후음으로 분류하고 있다. 1493년 성현(成俔) 등도 『악학궤범(樂學軌範)』의 오성도설(五聲圖說)에서 송나라 진양(陳暘)의 『악서(樂書)』의 말을 인용하면서 궁-중양-토, 우-북방-수로 분류하고 있다.

“물(物)이 생겨 정(情)을 갖고, 정이 발해서 성(聲)이 된다. 그러므로 천(天)5와 지(地)10이 합하여 중앙에 토를 낳으니 그 성은 궁(宮)이다. 지4와 천9가 합하여 서방에 금을 낳으니 그 성은 상(商)이다. 천3과 지8이 합하여 동방에 목을 낳으니 그 성은 각(角)이다. 지2와 천7이 합하여 남방에 화를 낳으니 그 성이 치(徵)이다. 천1과 지6이 합하여 북방에 수를 낳으니 그 성은 우(羽)이다.”⁶¹⁾

훈민정음 제자 원리와 역학과의 관련은 조선시대의 다른 문헌에도 나타난다. 최석정(崔錫鼎, 1646-1715)이 1678년(숙종 4)에 편찬한 『경세정운(經世正韻, 경세훈민정음)』은 우리나라 최초의 운도(韻圖)로 평가된다. 최석정은 『경세정운』에 「17성분배초성도(十七聲分配初聲圖)」를 실어면서 훈민정음의 초성체계를 그대로 이어받아 17초성을 오음으로 분류하고 있다.

61) 『樂學軌範』 권1, “樂書云夫: 物生而有情, 情發而爲聲, 故天五與地十合而生土於中, 其聲爲宮. 地四與天九合而生金於西, 其聲爲商. 天三與地八合而生木於東, 其聲爲角. 地二與天七合而生火於南, 其聲爲徵. 天一與地六合而生水於北, 其聲爲羽.”

〈표 10〉 『경세정음』의 17성분배초성도

十七聲分配初聲圖			
ㄱ 君	ㅋ 快	ㅇ 業	牙音(角)
ㄷ 斗	ㅌ 呑	ㄴ 那	舌音(徵)
ㅂ 擘	ㅃ 漂	ㅁ 彌	脣音(宮)
ㅈ 卽	ㅉ 侵	ㅅ 戍	齒音(商)
ㅇ 挹	ㅎ 虛	ㅇ 欲	喉音(羽)
		ㄹ 閻	半舌音
		ㄷ 穰	半齒音

『경세정음』과 더불어 조선을 대표하는 운도인 신경준의 『훈민정음 운해』는 훈민정음 초성·중성·종성에 대하여 소용의 『경세정성정음 창화도(經世正聲正音唱和圖)』 등 동양철학 이론을 많이 적용하며 설명하였지만, 신경준이 『훈민정음』 원본인 해례본을 참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훈민정음 제자 원리의 철학적 배경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⁶²⁾ 최현배(崔鉉培, 1894-1970)도 그의 저서 『고친 한글갈』에서 신경준이 『훈민정음』 원본을 보지 못하고 『훈민정음운해』를 저술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한글의 태극사상 기원설과 관련해서도 “(신경준은) 鄭(인지)서(序)만 보았을 뿐이요, 그 ‘훈민정음 해례’는 보지 못하고, 다만 자기의 요량대로 태극설과 한글과의 관련을 붙여 본 것이다.”⁶³⁾라고 하면서 신경준이 『훈민정음』 원본을 보지 못한 채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고 지적하였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으니 신경준이 정인지 무리의 ‘훈민정음해례’를 보지 못한 일이다. ① 그의 지음 중에 ‘해례’를 들어 말한 일이 도모지 없으며, ② 그의 가운소리[중성] 발생설이 ‘해례’의 것과 자형적으로 다르며, ③ 첫소리[초성]의 끝본뜨기설[상형설]에 대하여 “此段尤妙, 可謂發前人所未發.(이 단락은 더욱 뛰어나다. 앞 사람이 미처 드러내지 못한 것을 나타냈다고 말할 수 있다)”이라 자찬함은

62) 이성구, 앞의 책, p.26 참조.

63) 최현배, 『고친 한글갈』, 정음문화사, 1982, pp.624-625.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⁶⁴⁾

이런 내용들로 미뤄볼 때 신경준은 『훈민정음운해』 저술 당시 『훈민정음』 원본을 읽어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그의 훈민정음에 대한 역학적 접근은 자신의 탁월한 개인적 추론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최현배는 “申公은 ‘훈민정음해례’도 보지 않고서 여러 방면으로서 첫소리 글자의 끝본뜨기설을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⁶⁵⁾라고 하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음운서를 주로 살펴봤는데, 송대 요중(廖中)이 펴낸 추명서(推命書)인 『오행정기(五行精紀)』에서는 사람의 성(姓)을 오음으로 분류하면서 『신백경(神白經)』의 구절을 인용하여 ‘후음-궁, 순음-우’(喉宮, 脣羽)로 배속하였고, 『삼명검(三命鈐)』의 구절을 인용하여 ‘궁음과 우음을 수토(水土)에 함께 배속’(宮羽音屬水土)하였다.⁶⁶⁾

자음의 순음-후음 분류에 관해 지금까지 살펴본 문헌들을 정리해 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자음의 순음-후음 분류 문헌

脣音-宮聲(土) / 喉音-羽聲(水)		脣音-羽聲(水) / 喉音-宮聲(土)	
조선	중국	조선	중국
『훈민정음』 해례본 『경세정운』	『절운지장도』 『고금운회거요』 『사성등자』 『성운고(聲韻考)』	『동국정운』 『훈민정음운해』 『홍문정음역훈』 『사성통해』 『화동정음통석운고』	『칠음략』 『홍무정운』 『오행정기』

비록 조선과 중국의 관련 문헌 전반은 아니지만 주요 문헌을 통한 비교이므로 그 윤곽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 대체로 중국의 운서

64) 같은 책, p.300.

65) 같은 책, p.300.

66) 『五行精紀』 권9 論五行·三 <辨五音訣>, “舌音爲徵, 齒爲商, 牙角, 喉宮, 脣羽, 方能五姓類中, (…)(神白經) 五音貴旺, 蓋取本音五行, 各至相旺處也, (…)宮羽音屬水土, 旺在亥子, 德在未申, (…)(三命鈐)”

들은 『훈민정음』과 같은 분류를, 조선의 운서들은 『훈민정음』과 다른 분류를 하는 경향이다.

『백호통의(白虎通義)』 예악(禮樂)편에 따르면, 궁상각치우의 오성을 (오행과 각각 연관 지으면) 토는 궁성, 금은 상성, 목은 각성, 화는 치성, 수는 우성에 해당된다. (오성의 명칭이 되는 까닭으로) 각(角)은 ‘뛰어오르다[躍]’의 뜻이다. 이때 양기가 움직여 뛰어오른다. 치(徵)는 ‘그치다[止]’의 뜻이다. 이때 양기가 (정점에 이르러) 그치게 된다. 상(商)은 ‘펼치다[張]’의 뜻이다. 이때 음기가 나와서 펼쳐지고 양기가 내려가기 시작한다. 우(羽)는 ‘구부리다[紆]’의 뜻이다. 이때 음기가 위에 있고 양기가 아래에 있다. 궁(宮)은 ‘안에 담다[容]’, ‘머금다[含]’의 뜻이다. 사시를 폼아서 담아 있는 것을 말한다.⁶⁷⁾

고대의 음악은 현(絃)의 굵기와 가늘기에 따라 그 소리의 장단·고저·청탁을 구분하였으니, 곧, 궁성(宮聲)은 현이 가장 굵으므로 그 음이 가장 길고 낮고 탁하며, 상성(商聲)은 현이 그 다음으로 굵으므로 그 음이 둘째로 길고 낮고 탁하며, 각성(角聲)은 현의 굵기와 가늘기가 중간이므로 그 음도 장단·고저·청탁이 중간이고, 치성(徵聲)은 현이 그 다음으로 가늘기 때문에 그 음이 둘째로 짧고 높고 맑으며, 우성(羽聲)은 현이 가장 가늘기 때문에 그 음이 가장 짧고 높고 맑다.⁶⁸⁾ 즉, 중국 음악에서 음계로 사용되던 오성은 궁(토)→상(금)→각(목)→치(화)→우(수)의 순으로 그 음이 점점 짧아지고 높아지고 맑아진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훈민정음』은 오음을 오행에 각각 배정하면서 ① 발음기관의 성질 ② 발음되는 소리의 성질을 근거로 하였다. 먼저, 소리가 나는 자리, 즉, 목구멍·어금니·혀·이·입술 자체의 성질이 각각 물·나무·불·쇠·흙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목구멍은 깊고 윤택하니 물, 어금니는 어긋나고 길어서 나무, 혀는 재빠르게 움직이므로 불,

67) 班固, 『白虎通義』 권上 禮樂, “五聲者, 何謂也. 宮商角徵羽. 土謂宮, 金謂商, 木謂角, 火謂徵, 水謂羽. (….) 所以名之爲角者, 躍也. 陽氣動躍. 徵者, 止也. 陽氣止. 商者, 張也. 陰氣開張, 陽氣始降也. 羽者, 紆也. 陰氣在上, 陽氣在下. 宮者, 容也, 舍也. 舍容四時者也.” ; 반고 저, 신정근 역주, 『백호통의』, 소명출판, 2005, p.116.

68) 權依經·李民聽 저, 김은하·권영규 역, 앞의 책, p.62.

이는 단단하고 자르니 쇠, 입술은 모나고 합해지니 흙이란 것이다.

다음으로, 발음되는 소리 그 자체가 다섯 물질의 성질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목구멍소리(ㅇㅎ)는 비고 통하니 이것은 물이 비고 맑고 흘러 통함과 같다. 어금닛소리(ㄱㅋㅇ)는 목구멍소리와 비슷하나 가득 차 있으니 이것은 나무가 물[목구멍]에서 나서 형체가 있음과 같다. 혀소리(ㄴㄷㅌㄹ)는 구르고 날리니 이것은 불이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것과 같다. 잇소리(ㅅㅈㅊㅌ)는 부스러지고 걸리니 이것은 쇠가 부서져서 단련되는 것과 같다. 입술소리(ㅁㅂㅍ)는 머금고 넓으니 이것은 땅이 만물을 머금어서 넓고 큼과 같다.

즉, 목구멍소리는 유동적(流動的)이어서 물처럼 흐르는 듯하고, 어금닛소리는 단단하여 나무를 두들기는 듯한 소리로 들리고, 혀소리는 -특히 ㄴㄹ- 불꽃이 재빨리 움직이는 듯 느껴지고, 잇소리는 쇠가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나며, 입술소리는 땅처럼 든든한 느낌을 준다. 훈민정음 창제자들은 자음 소리에서 이러한 인상을 받았고, 이러한 인상을 철학적으로 해석한 것이다.⁶⁹⁾

앞서 살펴본 오성(오행)의 특성에 오음의 성질을 각각 연결해보면, 궁성(토)-입술소리(ㅁㅂㅍ), 상성(금)-잇소리(ㅅㅈㅊㅌ), 각성(목)-어금닛소리(ㄱㅋㅇ), 치성(화)-혀소리(ㄴㄷㅌㄹ), 우성(수)-목구멍소리(ㅇㅎ)의 관계가 가장 적절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별문제가 없다면 훈민정음의 오음·오성·오행 배속에 관해서는 무엇보다도 훈민정음 창제자들의 인식-『훈민정음』 해례본의 견해-을 가장 우선해야 함이 지극히 당연하다. 더구나 훈민정음 순음과 후음의 오성·오행 분류에 혼란이 생겨나게 된 발단인 『훈민정음운해』의 저술자 신경준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지 못한 것이 지적되는 현 상황에서 명확한 논거도 없이 『훈민정음』 해례본의 오음 분류에 이론(異論)을 제기하는 것은 훈민정음 창제에 담긴 본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으로서 결코 합당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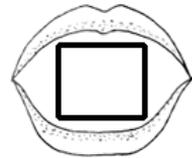
앞서 고찰했던 『사성등자』 「칠음강목」에서 순음을 궁성(土), 후음

69) 허웅, 앞의 책, pp.310-313 참조.

을 우성(水)으로 삼은 사실을 두고 오음에 관한 옛 방법을 고친 것이라는 『사고전서총목제요』의 말도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이는 원래 음악 용어이던 오성의 명칭이 성모(자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면서 일정한 음계 상의 연관도 없이 오음과 명칭의 대응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혼란을 비로소 정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입술소리 ‘ㄱ’을 소리 낼 때는 입술이 열렸다 닫히므로 이때의 입 모양을 본떠서 ‘ㄱ’자를 만들었다. 중국 한자의 ‘口’(입 구)자도 원래 입의 모양을 본뜬 것이므로 이 두 글자는 같게 만들어졌다.⁷⁰⁾ 그리고 입술소리의 기본자 ‘口’은 땅(土)이 사방(四方)으로 펼쳐진 ‘지방(地方)’의 모습과도 닮았다. 이는 글자 모양 상으로도 ‘口’이 궁성인 土 음에 배정된 근거로 볼 수 있다.

훈민정음에서 ‘ㅇ’(이응)은 음가(音價)가 없는 글자이다. 가령 ‘아’는 모음 ‘ㅏ’의 소리만을 나타낼 뿐이지 실제 ‘ㅇ’의 음가는 없다. 그러나 소릿값이 없는 것을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무(無, zero)의 소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ㅇ’를 만든 것이다. 그리하여 음가가 없는 소리를 표기하는데 ‘ㅇ’



<그림 6> 순음

을 활용했으니, 이것은 오늘날 수학의 ‘0’(영)과도 통한다.⁷¹⁾ ‘ㅇ’(이응)의 발명은 수학에서 영(0)의 발명만큼이나 획기적이며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림 3> 선천 하도에서 보면 만물은 오행상 水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水는 만물의 본원으로서 생수(生數)는 1이 되고 성수(成數)는 6이 된다. 『서경(書經)』 홍범(洪範)편에서도 오행의 첫째는 水이며 水는 적시며 내려가는 것⁷²⁾이라고 하였다. 이는 훈민정음 창제자들이 음가가 없는 목구멍소리 ‘ㅇ’을 만물의 근원이자 오행의 본원인 水에 배정한 까닭으로 볼 수 있다.

70) 위의 책, p.302.

71) 허웅, 『한글과 민족문화』,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pp.76-77.

72) 『書經』 『周書』 洪範, “五行, 一曰水, 二曰火, 三曰木, 四曰金, 五曰土. 水曰潤下, 火曰炎上, 木曰曲直, 金曰從革, 土曰稼穡.”

V. 맺음말

훈민정음 창제의 철학적 배경이 된 것은 『주역』과 『성리대전』이고, 그 학문적 배경에는 중국 음운학에 대한 지식, 송대 신유학의 영향이 있었다. 송대 신유학은 인간의 본성, 우주의 근본원리 등 철학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유교의 형이상학적 면을 발전시키기 위해 도가와 불교사상을 수용하고 유교경전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하였다. 우주의 모든 현상과 그 변화의 이치를 상(象)과 수(數)의 역리(易理)로서 이해하고자 한 소옹이 『황극경세서』에서 성음의 이치를 알아야만 만물의 이치를 알 수 있다며 「경세정성정음창화도」를 작성하였고, 이것이 훈민정음 창제자들을 비롯해 조선의 운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준 것도 바로 이런 철학적·학문적 배경 때문이었다.

한글은 사람의 소리에도 모두 음양오행의 이치가 담겨 있으므로 그 소리의 음양오행 이치에 따라 각 글자에 해당하는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다. 그 과정에서 발음기관과 발음작용의 모습을 정확하게 관찰하였고 그것을 가시적인 문자로 형상화하였다. 그러나 ‘모습[形]을 본뜨다[象]’는 의미를 구체적인 실물로 한정해서는 안 되며, 역의 패상처럼 추상적·형이상학적 의미까지도 형상화했다는 뜻으로 확장 해석을 해야만 한글에 함축된 역학적 의미를 보다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한글은 문자이면서도 그 배경에는 우주 본체론의 동양적 이치인 역학사상을 함축하고 있다. 그 이치란 다른 게 아니라 하늘이 음양의 이기(二氣)와 오행을 부여해서 만물을 생기게 하는 것이다. 만물의 다양한 모습은 오행의 다름에서 비롯되고, 오행의 다름은 음양의 본질에 바탕을 두고, 음양의 본질은 하나의 이치인 태극에 근본을 둔다. 만물 속에는 각각 하나의 태극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상수(象數)가 있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주의 모든 존재와 그 운행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는 태극·음양·오행·삼재로 귀결된다는 역철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성음을 이해했던 우리 선인들의 사유(思惟) 결정체가 오늘 날 ‘한글’이란 소리와 문자로서 화현(化現)되어 존재하는 것이다.

비록 한글이 태극[道·理]라는 하나[一]의 이치에서 출발해서 만들어졌지만 그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다름[殊]을 연출하고 있는데 (체용 관계), 그 대표적 예가 바로 순음과 후음의 오성·오행 분류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순음과 후음의 분류에서 차이가 생기는 근본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겠다.

한글의 제자·자음·모음·합자 등에는 동양의 역철학적 원리와 사상들이 대거 함축되어 있기에 한글은 음운적 자질(資質)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만든 문자 체계이면서도 그 배경에는 역학의 원리와 사상이 함축되어 있는, 철학적 사유 요소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유일한 문자로 평가된다. 인간이 한 사회에서 철학적 사유를 전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방법적 수단이 언어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우리가 우리 말과 글을 가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철학 공동체의 기반을 형성했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투 고 일: 2012. 04. 02.
 심사완료일: 2012. 05. 03.
 게재확정일: 2012. 07. 19.

김만태
 서라벌대학교 풍수명리과

참고문헌

- 『老子』, 『白虎通義』, 『四庫全書總目』, 『書經』, 『性理大全書』, 『樂書』, 『樂學軌範』, 『易學啓蒙』, 『五行精紀』, 『切韻指掌圖』, 『周易』, 『朱子語類』, 『通書』, 『皇極經世書』, 『訓民正音』, 『訓民正音韻解』
- 강신항, 『운해 훈민정음 연구』, 한국연구원, 1967.
- _____,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9.
- 고영진, 『음양오행설의 언어이론 가능성 모색』, 『한민족문화연구』 29, 한민족문화학회, 2009.
- 權依經·李民聽 著, 김은하·권영규 역, 『오운육기학 해설』, 법인문화사, 2000.
- 김다운, 『훈민정음의 비밀』, 생각의나무, 2008.
- 김동소, 『중세 한국어 개설』, 한국문화사, 2003.
- 김만태, 『한국 사주명리 연구』, 민속원, 2011.
- 김슬옹, 『‘훈민정음’을 만든 원리와 속성』, 『세종대왕과 훈민정음학』, 지식산업사, 2010.
- 김영동, 『『악학궤범』에 나타난 악리 연구-『오성도설』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영환, 『<해례>의 중세적 언어관』, 『한글』 198, 한글학회, 1987.
- 리득춘, 『한조언어문자 관계사』, 박이정, 1996.
- 박창원, 『훈민정음』, 신구문화사, 2005.
- 반고 저, 신정근 역주, 『백호통의』, 소명출판, 2005.
- 方立天 지음, 이기훈·황지원 옮김, 『문제로 보는 중국철학-우주·본체의 문제』, 예문서원, 1997.
- 송재국, 『주역의 삼재사상과 인간이해』, 『동서철학연구』 17, 한국동서철학회, 1999.
- 유승국, 『한국의 유교』,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0.
- 유정기, 『국학문제논집』, 상지사, 1979.
- 이상백, 『한글의 기원-훈민정음 해설』, 통문관, 1957.

- 이성구, 『훈민정음연구』, 동문사, 1985.
- 이옥주, 『《사성등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이정호, 『훈민정음의 구조원리』, 아세아문화사, 1978.
- 정경일, 『한국운서의 이해』, 아카넷, 2002.
- 정대현, 『한국어와 철학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5.
- 曹湧鉉, 『도구·의식·언어』, 『과학과 철학』 5, 과학사상연구회, 1997.
- 최현배, 『고친 한글갈』, 정음문화사, 1982.
- 허웅, 『국어학—우리말의 오늘·어제』, 샘문화사, 1983.
- _____, 『한글과 민족문화』,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ABSTRACT

A Study on the Principle of Character
Combination and the Ideology of Science of
I Ching in *Hunminjeongeum*:

Focusing on the Principles of Yin-yang and Five Elements & the
Principles of Three Components of the Universe

Kim, Man-Tae

The shape of each alphabet in *Hunminjeongeum* was modeled after the principles of yin and yang and the five elements under the idea that even human sound contains the principles of yin and yang and the five elements. One can develop a full understanding of the meanings of philosophy of I Ching implicated in *Hunminjeongeum* only by expan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modeling after” to the embodiment of even abstract meanings such as the trigrams of the I Ching. The ideology of science of the I Ching implicated in *Hunminjeongeum* is that Heaven created all things by granting them yin and yang and five elements. The diverse forms of all things derive from differences in the five elements, which are based on the nature of yin and yang, which takes its root in the Great Absolute, a principle. There is a Great Absolute in everything. The product of the ancestors’ thinking style, which was to understand human vocal sounds from the perspective of philosophy of the I Ching that the creation and operation principles of all things in the universe are based on the Great Absolute, yin and

yang, five elements, and three components of the universe, was the sounds and letters of “*Hangeul*” today. *Hunminjeongeum* started from a principle called the Great Absolute, but it does have differences in the Oseong and Ohaeng distinction of labial and guttural sounds, which are its applications. Given that there are many principles and ideologies of oriental philosophy of the I Ching implicated in the letter creation, consonants, vowels, and letter combinations of *Hunminjeongeum*, it is no wonder that *Hangeul* is considered the only alphabet that expresses phonemic quality visually and contains the elements of philosophical thinking.

Keywords: *Hangeul*(한글), *Hunminjeongeum*(훈민정음), Science of I Ching, Philosophy of I Ching, Yin-yang and Five Elements, Three Components of the Universe